

## 2015학년도 부학회장 인사말

10학번 강승민

안녕하십니까.

2015년 제대로 철학과 학생회 부회장 강승민입니다.  
항상 말로 인사를 나누다가 이렇게 글로 여러분을 만나려니 어떻게 글을 적어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 년 전에도 오늘처럼 인사말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015년을 여는 글이었다면 오늘은 2015년을 마무리 하는 글이 되겠네요. 같은 인사말이지만 느낌은 매우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대로 철학과 회장인 한승수 학우와 부회장인 저는 2015년 ‘제대로’ 라는 철학과 학생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덕분에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5년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내드리고,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체육대회를 참여하며 축제에서 애틀까지 분명 잊그제 일 같았었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 야속하다는 단어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너무 야속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저와 한승수 학우가 한 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마지막에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취직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도 큰 짐을 우리가 짊어졌진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곤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겠다. 나는 평범하지 않고, 대단한 아이일 것이다. 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

는 2015년 동안 정말 해낸 것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터득하지 못했고, 졸업자격인 영어점수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뿐더러 작년의 목표였던 호주여행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마리 토끼만 잡은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철학과 학우님들 덕분에 토끼 중에서도 제일 통통한 녀석을 잡았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우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저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인간다워졌습니다. 저한테 사람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하하. 2015년 추억을 함께했던 많은 철학과 학우님들, 이 추위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학우님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고 있을故 김선인 학우님, 많이 부족했던 저와 한승수 학우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015년은 제가 만20세가 되어 19세 빨간 영화를 당당하게 볼 수 있었을 때보다 더욱 행복한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2015년이 뜻 깊은 한 해로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도 '제대로' 슬로건처럼 큰 길을 밝게 나아가, 행복한 일만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2015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일 년 동안 저희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신 철학과 교수님, 조교선생님, 동문선배님, 선후배님,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 철학과 제대로 학생회 집행부와 나의 동기이자, 회장 한승수 학우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며, 2015년 제대로 철학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